

〈함께하는예배소식〉

1. 함께하는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 목회실에서 환영 및 면담시간이 있습니다.
2. 주보에 기재된 주간 나눔의 말씀을 읽고 가정 및 소그룹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 2011 표어 : 가서 제자 삼아라(마28:19)
4. 전도실천: ①금년도 전도대상 정하고 기도하기. ②직접 전도하기
5. 금요기도회: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6. 3월 6일 주일부터 장년부 베리트(언약) 예배로 드립니다.(시간 오후 3:30)

〈유투공동체예배소식〉

1. 유투공동체예배 이후 순 모임이 있습니다.
2. 다음 주일 오후부터는 유투 공동체만 예배를 드립니다.
3. 새 학기를 맞아 학원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예배 팀원으로 섬길 지체를 모집합니다.
5. 예배를 위해서 악기(신디와 베이스기타앰프)가 필요합니다.

(마 28:19)

1. 우리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동전주노회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칼빈 주의 개혁신학을 기반으로 세워진 교회로서 교회 이름은 “함께하는교회(Together Community Church)”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연합된 사실을 뚜렷하게 드러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 우리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에 두고, 그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선포하며, 개혁주의 신학과 그 유산들인 ‘소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신조’, ‘틀트신경’, ‘벨직신앙 고백서’ 등을 배우며, 그 교리를 실천하는 현실적 증표를 거룩한 사명과 헌신을 우리교회의 표지(얼굴)로 삼았습니다.

3. 우리교회는 바이블아카데미 안에 성경대학을 개설하여 초급반(기독교교리공부 10주과정)과 중급반(성경의 숲을 보는 교육 8개월과정)과 고급반(역사, 사상, 문화관, 세계관 공부, 약 2년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우리교회는 이단이 난무한 시대에 이단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안내해 주고 치유해 주는 사역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6일

함께하는교회표지

- *오직 하나님께 영광
- *순전한 말씀 선포
- *개혁주의 신앙 실천
- *거룩한 사명과 헌신

바이블 아카데미

1. 성경대학 운영
2. 기독교 사상 세미나
3. 회복 사역 센터 (이단상담 & 치유)

공동체 예배시간

주일함께 하는예배	10:30
유투공동체 연합예배	14:00
유초등부	15:30
수요예배	19:30
금요기도회	21:00

대한예수교 장로회 함께하는교회

담임목사 오명현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2가 40-31
(☎ 063-905-3355)
(✉ dasisijac326@hanmail.net)

2011

가서 제자 삼아라

Go Make Disciples [마 28:19]

주일함께하는예배

오전 10시 30분

인도:오명현목사

전 주(프롤로그)

반주자

시편낭독

시 19:1-3

오명현목사

영광송

626 장

신앙고백

사도신경

성삼위송

13 장

성시교독

교독문 10번

경배송

37 장

기도

서재호 집사

성경봉독

요 6:30-40

봉헌

찬송 433 장

헌금위원 정재용집사

봉헌기도

오명현목사

말씀강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오명현목사

기도

인도자

송영

6 장

다같이

축도

오명현목사

후주

반주자

교회소식

인도자

다음주 기도: 김용회집사

현상 위원:정재용 집사

안내위원:이정환집사, 함점순집사

주일
오후
예배

찬양

말씀

김은혜집사

오명현목사

수요

본문

행 1:19-30

예배

말씀

안디옥 교회

오명현목사

안내

기도

김부자 집사



함께 잘 함께 쉽 하

가끔씩 부부들의 상담을 한다.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자기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때면 난처할 때가 있다. 그러나 상담 이후에 웃으면서 잘 살겠다는 다짐을 든곤 한다. 서로에게 처지를 바꾸어서 말을 하게 한 것이 답이 된 것이었다.

어느 날 잘 아는 주부가 일곱 살 된 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옷에다 대변을 저린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상담해 왔다. 유분 증세가 심한 아들은 친구들과 놀다가도, 아니면 집에서 놀다가도 냄새가 나서 보면 옷에다 변을 저린 것이었다. 혼내기도 하고, 달래도 보았고, 병원도 여기 저기 다녀보았지만 전혀 나아진 것이 없었다.

요인을 간파하기가 쉽지 않았다. 주부와 의 대화 과정에서 심리상태와 생활 태도를 살폈다. 매사를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연하의 남편에게 연상이라는 자존심 내 세웠다. 자존심은 사소한 일에도 티격태격하게 했다. 부부의 문제가 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생각 끝에 놀이치료를 안 내했다. 놀이치료사는 그 주부에게 아들과 역할을 바꾸어 놀이를 하도록 했다. 역할을 바꾸어 놀이를 시작했다.

아들은 동생 한 명 낳아 달라고 졸라댔다고 한다. 그래서 엄마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인형으로 동생 역할을 하는 놀이를 하였다. 엄마, “형아 나는 형아를 좋아하는데”/ 아들, “나도 너 좋아해”/ 엄마, “형아 짱구 사먹을까”/ 아들, “그래 형이 사줄게”/ 엄마, “그런데 형아는 왜 옷에다 똥을 싸는 거야”/ 형아, “엄마가 미워서 일부러 싸는 거야”/ 엄마, “왜 엄마가 미워”/ 아들, “맨날 아빠와 싸우니까 미지”/ 엄마, “형아 엄마가 아빠와 안 싸우면 똥 안 싸겠네”/ 아들, “그럼 엄마가 아빠와 안 싸우면 나 똥 안 싸”....

동생 역할을 하는 그 주부는 기가 막히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다. 평소엔 달래면서 왜 똥을 싸느냐고 물어도 한번도 자기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모습이 아들에게 잘못 비추어진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다. 또한 역할극의 신비함에 놀랐다. 일곱 살 철없는 아들이 동생에게는 형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그 주부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역할극을 이어갔다고 한다. 엄마, “형아 엄마가 왜 아빠와 싸우는지 알아?”/ 아들, “몰라”/ 엄마, “형아 아빠가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엄마 괴롭히니까 엄마가 기분 좋겠어?”/ 아들, “그랬어 나는 몰랐어 엄마 기분 안 좋았겠다”/ 엄마, “형아 아빠 기다리다가 엄마 우는 것 봤어?”/ 아들, “아니, 형아는 일찍 자니까 못 봤어”/ 엄마, “형아 엄마는 아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라고 잔소리하는 거야”/ 아들, “그래 나는 엄마 마음 몰랐는데”/ 엄마, “형아 이제 똥 싸지마”/ 아들, “그래 이제 엄마 마음 알았으니까 똥 안 싸게”/ 엄마, “와 우리 형아 멋지다”....

정말 그러더니 아들은 다음 날부터 옷에다 변을 저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미덥지 않았다. 그러나 몇 주 동안 유분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너무 감격하여 고마움의 전화를 해왔다. 그리고 부부 사이가 화목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마음에 반발심리가 형성되어서 보복하려고 못된 짓을 한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이 일 후로 그 주부는 자신을 많이 되돌아보았다고 한다.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남의 아픔을 가볍게 넘기고 난 다음에 자신이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간혹 본다.

역지사지, 이기적인 생각과 무딘 인격에서는 실천하기 힘든 방법인 것 같다. 엄마의 위치를 내려놓고 아들의 동생이 되어본 자기 비움이 있었기에 아들의 마음을 치료했다. 그 주부가 훌륭하게 보였다. 가장 힘든 것이 자기 비움이 아닌가,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 인간의 위치에 서신 주님께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절정을 엿보게 된다. ■

예배인도자 : 가족중간사람

찬송 : 95, 342장

기도 :

본문 : 창39:11-20

<요약>

금주는 야곱의 열 두 아들 중 요셉에게 말씀이 이동됨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을 외면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좇아간 에서는 언약의 줄기에서 완전하게 제외되었다. 야곱의 열 두 아들들 중에 미래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요셉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쓰임받기 위하여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를 살펴해보면서 얻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자신의 생의 목적으로 삼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의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요셉의 나이 17세에 자신의 생을 담을 수 있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계시는 꿈의 형태로 왔습니다. 꿈에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머리를 숙였다는 것과,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이 꿈은 미래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우리의 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합니다. 요셉이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새기면 오늘도 쓰임 받지만 미래의 지도자가 됩니다.

둘째로 요셉은 꿈을 통해 받은 언약 때문에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요셉의 영적 상태와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흘려버리지 않은 자세, 이것은 어린이들이든지 어른이든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은 노아에게 전수된 언약을 마음에 간직하고 삶으로 증명해 냈던 것입니다. 나의 미래가 말씀에 달려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 확신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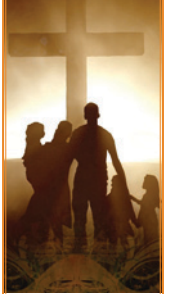
셋째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형통했지만 자신에게 다가온 유혹을 경건함으로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경건의 능력이 실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사단의 항상 방해합니다. 사단은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보디발의 아내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경건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주권과 자신의 위치에 대한 바른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에 나를 무너지게 하는 유혹들을 이기려면 세상에 대하여 부하하려는 마음을 단속해야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만큼을 행복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미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요셉은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원망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창조하는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명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낸 사람들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막연하게 던져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바라보면 미래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줄에 나를 매어 놓는 것이 지도자로 길러지는 과정입니다.

공동기도 -가정을위한기도 -교회를위한기도

가족교회

주기도문



가 함 정 께 예 하 배 는

본문은 당시 문화에 대해서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다. 다만 다말의 이런 행동은 유다가문에 남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음을 알 수 있다. 친정으로 돌려보내졌지만 다말은 기어코 유다의 씨를 이어받았다. 마치 루이 모압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갔고 보아스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다말은 자기 영혼을 유다의 가문에 두기로 작정한 것이다. 언약의 가문에 속했다는 것이,

유다와 다말

창38:1-30

한 주간 읽는

요셉의 이야기 중에 갑자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동굴에 살았다. 이는 요셉의 사건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요셉을 죽이지 못하게 하려고 요셉을 팔아 넘긴 장본인이었다. 아버지의 슬퍼하는 모습을 피해서 아니면 형제들을 피해서 다른 곳에 자리를 잡았다.

1. 유다의 그릇된 혼인과 그 결과

①유다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했다. 그리고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다. ②유다가 장자 엘의 아내로 다말을 선택했다 하지만 엘이 악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 ③아굽이 둘째 아들을 다말에게 동침하도록 했지만 오난이 거절했고 그로 인해서 오난도 죽임을 당했다. 혼인의 신성함을 지키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큰 불행으로 나타났다.

2. 다말의 담대한 행동

①성경은 장자 정신을 매우 중요시한다. 장자의 후손을 이어야 하는 계대 결혼법이 율법에 명시될 정도이다(신25:5). ②유다가 며느리를 친정집으로 보냈지만 어느 날 유다가 친정 집에 왔다는 말을 듣고서 변장을 마을 통로에 앉아 있었다. ③유다가 그 여인을 창녀로 여겨서 접근하고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 아들을 낳았다. 너무 유치한 생각마저 든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조심해야 할 것은 항상 유혹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유혹의 요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비전은 나를 지탱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 우리가 신앙에 집중할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더욱이 세대를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보디발의 집에서의 요셉

창39:1-23

한 주간 읽는

본장은 다시 요셉의 이들을 언급하고 있다. 요셉은 애굽의 상인에 의해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 보디발은 바로왕의 시위 대장이었다. 보디발의 집의 모든 살림을 맡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보디발이 느끼고 알 정도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챙겨주셨다. 요셉이 주인의 총애를 받게 되었다. 점점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크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다듬어지고 있었다.

1. 큰 시험(유혹)을 받는 요셉

①용모가 준수한 요셉을 늘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다. 다름 아닌 보디발의 아내였다. ②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다. 눈짓을 하고, 노골적으로 동침하자고 요구했다. ③요셉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재물의 유혹보다 더 쉽게 무너지는 것이 성적인 유혹인데 요셉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자기를 경건하게 지켰다. 자기를 지키는 경건의 대가는 누명이었다. 당해본 사람만 아는 그 역울한 누명 말이다.

2. 감옥에서 은혜를 누리다

①요셉을 유혹하려다가 실패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모함을 했다. ②이런 정도면 당장 죽였을 법 한 데 죽이지 않고 요셉을 옥에 가두었다. 어떤 영화처럼 보디발이 평소 자기 아내의 행실을 알았기 때문인가? ③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님의 사역(28강)

요6:30-40

들어가는 말

요한 복음은 어두운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이시지만 처음부터 메시아를 믿으라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속성에 담긴 특이한 부분을 들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요1:1)으로, 생명(1:4)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1:9), 생수(4:14)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상징적이며 비유적인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상징과 비유를 하나님의 행위에 근거하여 과거 역사와 인간의 삶의 경험으로 증명되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기적의 사건들을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을 설득하시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은 기적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기적에 담긴 영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적과 역사를 교훈으로 받지 않은 유대인

오늘 본문을 보면 군중들이 예수님께 두 가지 점을 언급했습니다. ①첫째는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나?”고 물었습니다(30절). 당시 군중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아니한 채 더 큰 표적을 구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불신의 때가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사6:9-10).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원인은 자신의 영적 어두움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두운데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버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②둘째로 군중들이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라고 출애굽의 역사를 들어서 언급하였습니다(33절). 이들은 과거 역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오늘을 바르게 진단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알려면 과거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오늘 내가 왜 사느냐의 답을 줍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삶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사상가 토니 레인은 말하기를 “우리는 현재를 알기 위하여 과거를 읽을 필요가 있다.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기억이 없는 사람과 같다. 역사에 대한 지식은 우리 자신과 우리와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보다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현재를 탐파하기 위하여 과거에 대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 모든 시대는 악점과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의 악점에 대하여 도전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역사를 알고 있으면서도 역사가 주는 교훈을 밀어내버립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나라

그래서 계속 예수님과 유대인들과 떡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런데 대화의 소재는 떡에 있지만 유대인들이 구하는 떡의 의미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떡의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본문 32-33절을 보면 주님께서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답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나라”고 하셨습니다(35절). 그리고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나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촉구하셨습니다(40절).

우리는 진리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설득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것입니다. 기도 하기가 그리 쉽지 않지요? 육신의 소욕은 경건보다도 태만을 더 좋아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깨우십니다. 자녀를 통해서 깨우시고,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깨웁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귀한 자리로 초대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밀어 넣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이루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나라”고 하셨습니다(요6:47-48). 이는 이미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권면하거나 선택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주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데 살이나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요6:51). 여기 “내 살”이라는 의미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실 주님의 몸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함께
일께
말하
씀는



또한 주님은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셨습니다(요6:58). 예수님 자신은 생명의 떡임을 강조하시면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던 떡과는 다르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었던 떡은 그것은 육체의 배고픔을 진정시켜 주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을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광야 40년은 징계와 교육의 기간들

예수님은 광야의 만나와 생명의 떡을 비교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비교를 하셨는가? 광야 40년 동안은 기적의 세월들이었습니다. 기적이란 일반의 법칙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추수의 법칙이 없이 양식을 먹었습니다.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적만으로 살았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수르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출15:24). 떡과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했습니다(출16:2). 육신의 문제들을 꺼내놓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죄악의 땅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지 않도록 해 주셨지만 계속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왜 애굽에서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젃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가데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불가론을 주장하였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올라가 치자고 주장했습니다(민13:30). 그 땅은 언약의 땅이라고 젃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두려워 말라고 갖가지로 설득을 하였습니다(민14:8-9). 그런데 민중들이 사납게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죽이려고 하였습니다(민14:10). 하나님께서 언약을 땅을 거역한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한 자들을 저주하셨습니다(민14:37). 결국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악평한 것 때문에 출애굽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 40년은 이스라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은 불신과 원망에 대한 채찍의 기간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배워야 할 교훈적 가치와 의미가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광야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을 배우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내구 누구인가를 각성케 하는 존재론적 교육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만나가 주는 교훈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세세하게 교육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은 너를 낮추시기 위한 날들이다. 너를 시험하는 기간들이다.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주리게도 하고 만나를 먹이기도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신8:2-3). 광야 40년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는 기간들이었습니다.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부딪친 난관은 양식 문제였습니다. 삶의 기본적인 문제 직면했을 때 저들은 곧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배불리 먹던 노예시절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 지금 당장에 배고파 죽겠다는 것입니다. 현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노예로 있던 때가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지도자 모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육신의 문제를 꺼내놓고 하나님께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노예의 속박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환상이나 기대감이 심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푸신 기적이 만나와 메추라기요 반석에서 나온 샘물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에 대해서 출애굽기 16장 4절은 하나님이 원대로 실컷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배부르다고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수준과 가치의 문제가 우선되어야 하나님을 옳게

본 장은 에서의 이름은 “붉다”라는 뜻이다. 에서의 이름의 의미를 따라서 에돔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다. 에돔은 세일산에 그 나라를 세웠다. 세일산은 험한 산이라는 뜻이다. 언약을 버리고 나라를 세웠는데 후에는 언약백성을 괴롭히는 역할을 많이 했다. 사울 때에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다윗 때에는 에돔을 정복했다. 두고두고 언약백성의 가시가 되었다.

1.에돔(에서) 족속의 흔적

①BC586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 갈 때에 바벨론을 응원했다(시137:7). ②또한 바벨론의 침략을 틈타서 팔레스타인 남부를 양도받고 헤브론까지 침투했다(겔25:12-13). ③또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서 두 살 아래 사내아이를 모두 죽이도록 명령을 내린 헤롯은 에돔 족속의 후손이다. 결국 에돔은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미래의 심판의 장소로 알려지고 있다.

2.에돔(에서)의 족보의 의미

①에돔의 족보는 그의 부모를 근심하게 할 정도로 가나안 족속, 즉 우상의 문화가 그 피 속에 섞여 있었다. ②그의 아내들을 보면, 헛족속, 히위족속으로 언약 백성의 경계 대상 1호였다(창27:46;신7:1). ③에서, 엘리바스, 아말렉으로 이어진다. 특히 아말렉은 후대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가 된다. 결국 에서의 족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철쭉 같은 밤에 반딧불이 환한 빛을 내듯, 읊이 이 당시 사람이었음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읊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요압이 등장한다. 이들은 에서의 족보의 동일 인물들이다(창36:10,33;욥1:1;4:1). 인생은 숙명론의 존재가 아니다. 읊은 어두운 가문 속에서도 희미하게 흐르고 있던 신앙의 빛을 자기 영혼에 새긴 사람이었다.

본 장은 야곱이 계시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요셉에게 집중됨을 시사한다. 에서의 긴 족보를 끝으로 에서는 언약의 집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야곱의 족보를 시작하더니 곧바로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이는 언약의 줄기가 요셉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야곱의 열두 아들들은 후에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를 형성하여 한 사람도 버려지지 않았다. 그러면 요셉의 등장은 어떻게 되는가?

1.아버지의 편애와 형들의 시기

①요셉은 자기가 지목한 첫 번째 아내인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기에 야곱은 요셉을 가장 사랑했다. ②요셉은 비록 열 한 번째로 태어났지만 법적으로는 야곱의 큰아들이었다. ③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민족을 번창시키는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동생을 시기하였고 미워했다.

2.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다

①요셉의 나이 17세였다. 어머니가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필요로 할 때 큰 일을 만나게 되었다. ②요셉이 꿈을 꾸었다. 꿈에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머리를 숙였다는 것과,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였다는 것이다. ③이 꿈은 하나님의 계시이다. 미래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 형들이 그만 화가 나서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결국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넘겼다.

요셉의 꿈은 미래의 요셉이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가를 담고 있다. 형들은 이 꿈을 비웃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요셉의 꿈은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꿈이었다. 요셉이 장차 생사여탈권을 쥐게 될 것이다. 법적인 상속자로서 요셉의 장자가 아니면서 장자 역할을 하여 가문을 지키고 언약백성의 장자 역할을 해 내었던 것이다.

언약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을 누린다. 말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에 대한 언약을 주셨다(창35:11). 생육하고 번성하여 백성들의 총회గా나오고 왕들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이다. 후에 야곱의 열둘지파와 유다지파에서 메시아가 탄생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야 한다.

벤엘로 올라가라

창35:1-15

한주간의

언약 백성 야곱이 당한 아픔과 그 자녀들의 피의 사건들은 언약을 잊어버린 것 때문에 당한 하나님의 징계였다. 야곱의 삶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서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셨다는 점이다. 하나님이 종종 나타나심은 야곱의 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준다. 본문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로 시작하고 있다.

1. 일어나 벤엘로 올라가라

①지금 야곱의 매우 참담한 일을 당했다. 세겜에서 말이다. 그런데 곧바로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라고 하셨다. ②하나님은 20년 전에 야곱의 서원을 잊지 않으시고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다. ③야곱은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의 찌꺼기들을 세겜 땅에 묻었다.

2. 벤엘에 와서 제단을 쌓다

①야곱은 세겜을 버렸다. 그리고 모든 욕망과 함께 우상도 그 땅에 묻었다. ②야곱은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서원했던 땅 벤엘로 와서 제단을 쌓았다. ③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다른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 그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황태자’라는 뜻이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한 이후에 이삭이 180세에 죽었다. 이삭의 죽음에 대한 기사는 일반적인 죽음에 아들이 느껴진다. 언약의 땅의 상속자 야곱이 온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느낀다. 특히에서는 야곱과 함께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렀다. 두 사람이 함께 장례를 치렀지만에서는 언약의 상속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기업을 잇는 후사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야곱의 열 두 아들

창35:16-29

한주간의

1. 슬픔의 아들인가? 오른 손의 아들인가?

①야곱의 가슴을 불태웠고 고난도 이겨낸 힘은 아마 라헬에 대한 사랑이었을 것이다. ②벤엘에 돌아온 야곱은 경사를 맞이하게 되었다. 다름 아니라 사랑하는 라헬에게 잉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③그런데 그만 아기를 낳느라 너무 고생을 한 라헬이 그만 죽었다. 라헬이 죽으면서 지은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지만 야곱은 오른 손의 아들이라고 지었다.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생각하게 한다.

2. 이스라엘 미래를 담고 있는 열 두 아들

①다시 야곱의 열 두 아들들의 이름이 야곱의 부인의 차례에 따라서 거명되고 있다. ②레아에게서 얻은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라헬에게서 얻은 요셉, 베냐민, 라헬의 종에게서 얻은 단과 납달리, 레아의 종에게서 얻은 갓과 아셀이다. ③야곱의 열 두 아들의 언급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예견하게 한다. 그리고 언약의 정통성이 이들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섬깁니다. 애굽에 갇혀 있는 의식은 가나안이라는 언약의 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이 손에 잡힐 만큼 시작되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만 의식 자체가 육신적이고, 세속적이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더 가치 있게 깨닫지 못하면 순간 먹고 느끼는 것에 인생을 바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을 준비하는 목적으로 허락된 구원의 자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조건으로 주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 그리고 생명의 떡은 이 세상의 것을 위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 세상 문제를 풀기 위하여 사용될 수 없는 떡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럽고 허무한 것인가를 깨우쳐 줍니다. 옛사람일 때는 세상의 것을 맛있게 맛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은혜를 맛보면 세상의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것이 재미가 없습니다. 유행가도, 술도, 세상의 그 어떤 쾌락도 주님을 알고 진리와 성령으로 누리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과 복음을 통해서 누리는 영적인 것들은 풍요로움을 안겨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애굽(세상)적인 것을 과감하게 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말하고 선지자들의 글을 인용하면서도 천국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썩는 양식에 인생을 바치고 있었습니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떡을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일 먹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떡입니다. 영생의 떡으로 먹는 사람은 영적으로 자라갑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매주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일이 확실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허덕이지 않고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바랍니다.

Holy Community

1. 요한 복음은 무엇을 제시하고 있으며 요한 복음은 기적의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정리해 보세요. 또한 예수님의 속성에 담긴 특이한 부분은 어떤 것들인가를 정리해 보세요.
2. 군중들이 예수님께 언급한 첫째에 대해서 정리해 보세요.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불신의 때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세요.
3. 군중들이 예수님께 언급한 내용 둘째를 정리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역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를 정리해 보세요, 우리는 역사를 아는 것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가를 토니 레인의 말을 토대로 정리해 보세요.
4.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떡과 주님 말씀하신 떡은 어떻게 다른가를 정리해 보세요.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었는데 먹었다는 실질적인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정리해 보세요.
5. 광야 40년이 이스라엘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해 보세요,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가를 서로 나누어 보세요
6. 만나는 어떤 연유에서 주어진 것인가? 만나가 갖는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나에게 오늘 구원의 자리를 허락하신 무엇을 위한 것인지 나누어 보세요.

순 복습 교제 후, 의문사항 및 목회자와의 말씀나눔을 원하시면
순장님을 통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YOUTH TOGETHER COMMUNITY

오후 2시

인도:오명현목사

전 주(프롤로그)	반주자
시작기도	정재용집사
사도신경	다같이
다함께 찬양	예배팀
기도	이요셉
환영	예배팀
성경봉독	창 18:22-33 서예지
말씀	열 명의 의인으로 살라 오명현목사
봉헌	오명현목사*
축도	오명현목사*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예배 위원

	3월 6일	3월 13일	3월 20일	3월 27일	
대표기도	이요셉	김희호	김한나	김한결	
성경봉독	서예지	서예찬	이현준	김영진	

성경봉독

창18:22-33

(창 18:22)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18:23)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18:24) 그 성 중에 의인 오십 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오십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18:25)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18:2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오십 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18:27)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18:28) 오십 의인 중에 오 명이 부족하다면 그 오 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사십오 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18:29)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사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사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18:30)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18:31)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이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이십 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창 18:32)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창 18:3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유투공동체 소개

유투공동체는 Youth Together 의 약자로 함께하는 교회의 젊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Youth Together(유투)공동체 예배의 Vision.

성경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
공동체 헌신과 섬김이 있는 예배
열방을 향한 부르심이 있는 예배
순전한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유투공동체를 섬기는 분들 (Church Leadership)

대학청년부 : 오명현목사 (010-5207-0699)
부장 집사: 정재용집사 (010-8456-0070)
대청사역자: 김민수 집사(010-4631-2420)

청년회장: 이요셉(010-6757-1040)
여호수아순장: 오영준(010-2773-9258)
갈렘순장: 김은중(010-9766-1119)
요셉순장: 서주원(010-6812-2033)